

CEO 동경

### 신년 현충원 참배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일 30여명의 임직원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참배하며 계사년 새해를 시작하는 결의를 다졌다.

### 2013년도 시무식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일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인사말을 통해 "계사년 한 해 모두가 계획한 일을 잘 성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수도권본부 신년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8일 수도권본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더욱 빠르고 안전한 철도 건설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강원본부 신년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1일 강원본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주변의 여건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공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충청본부 신년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4일 충청본부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열린 소통과 자발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선도할 수 있는 공단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2012년도 경영성과 공유대회' 개최

- 유공자 63명 표창, 94명 성과금 지급 -

공단은 경전선 신설역 5개소 시설규모 개선, 공사손해보험 발주방식 변경 등 6개 예산절감 사례를 경영성과 우수사례(BP)로 선정했다. 공단은 과잉시설 개선, 설계VE, 금융비용 절감, 철도시설 개발, 기관운영 경비 등을 통해 작년 한해만 612억원, 총 1조20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또한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2011년도에는 공단설립 이후 최초로 415억원의 순부채를, 작년에는 600억원 이상의 순부채를 상환했다.

이에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27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2012년 한 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과 부서를 격려하는 경영성과 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은 5개 분야(인사, 경영혁신, 고객만족, 사회공헌, 예산절감)를 우수사례와 성과중심으로 구분해 공단의 비전과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 및 부서로 선정됐다.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솔선수범을 통해 타의 모범을 보인 직원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 사회적 책

임실현에 앞장선 직원에 대해서도 포상했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조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예산절감과 수익창출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철도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청렴의지 확산 위한 청렴대회 개최

- 부정부패 관련 내외부신고 '익명제보제' 시행 -



공단은 지난 27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부정부패 없이 철도를 건설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임직원 청렴결의대회를 열었다.

임직원은 이날 청렴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알선·청탁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공단은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상시감찰 체계 구축 및 청렴위기관리회의 등 반부패·청렴 조직 체계 강화 ▲부패 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 적용 ▲QR코드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익명제보제 시행 ▲협력업체 취업 퇴직 직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부패척결 제도개선 ▲지역본부 청렴릴레이(Clean Wave)결의대회 ▲부패취약 근무자 특별 청렴교육 ▲자

율적인 청렴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등 다양한 방안을 개선·도입하였다.

특히 부패행위의 철저한 예방과 척결을 위해 5단계로 구성된 쌍굴이식 금품·향응 수수자 적발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1단계 최근접 제보 제도 → 2단계 제3자 제보 제도(익명제보 시스템) → 3단계 자체 청렴도 조사 → 4단계 외부 청렴도 조사 → 5단계 청렴 VOC 수집을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로 구성되어 있다.

대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오늘 청렴결의대회는 공공기관으로서 향응이나 뇌물에 일절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공단 전 임직원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건설로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1조205억원 예산절감

- 설립 이후 최대 실적, 6200만원 포상금 지급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과잉시설 개선, 설계VE,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사상 최대인 총 1조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해만 현금유입으로 나타난 재무성과액은 612억원에 이른다.

본부는 재무성과액 612억원에 대해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2012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24건, 94명에게 성과금 6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우수 절감사례는 공사손해보험가입 방식을 시공사가 수익계약으로 보험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공단이 직접 경쟁입찰을 통한 일괄계약 방식으로 개선해 72억원을 절감한 사례를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세가 조세 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부가세 면제 대상임을 제기하는 소송을 벌여 승소해 154억원을 환급받은 사례를 선정했다.

그 외 시설규모 조정 및 시공방법 개선으로 244억원, 기존 외주 용역 업무를 공단직원 자체(설계)시행 등으로 68억원 예산절감,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74억원의 신규 수익을 창출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창의적인 업무추진과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을 더욱 절약하고, 공단 재무개선을 위한 부채증가를 최소화하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